

# 李대통령 “한중관계 지지 부탁”…자오러지 “정상궤도 복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게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 위원장과 만나 “저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자오 위원장이 그간 한중 교류에 기여한 부분과 관련해 “우리 측 인사들의 방중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안다”며 “2012년 산시성 당서기 시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도 유치하시며 한중 경제협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신 점도 잘 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자오 위원장은 “우호와 협력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선명한 바탕”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

전인대 상무위원장 만나 “민의 대표기관 역할 중요…상호이해·공감대 확장”  
판다 추가 대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민관·정당 간 대화채널 필요성 논의  
자오러지 “중한관계 새국면 맞아…시주석·李대통령, 새로운 청사진 그려”

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궤도로 복귀했고, 새 국면을 맞이했다”며 “중한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잘 이행하고,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화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며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하는 것도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

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한 지원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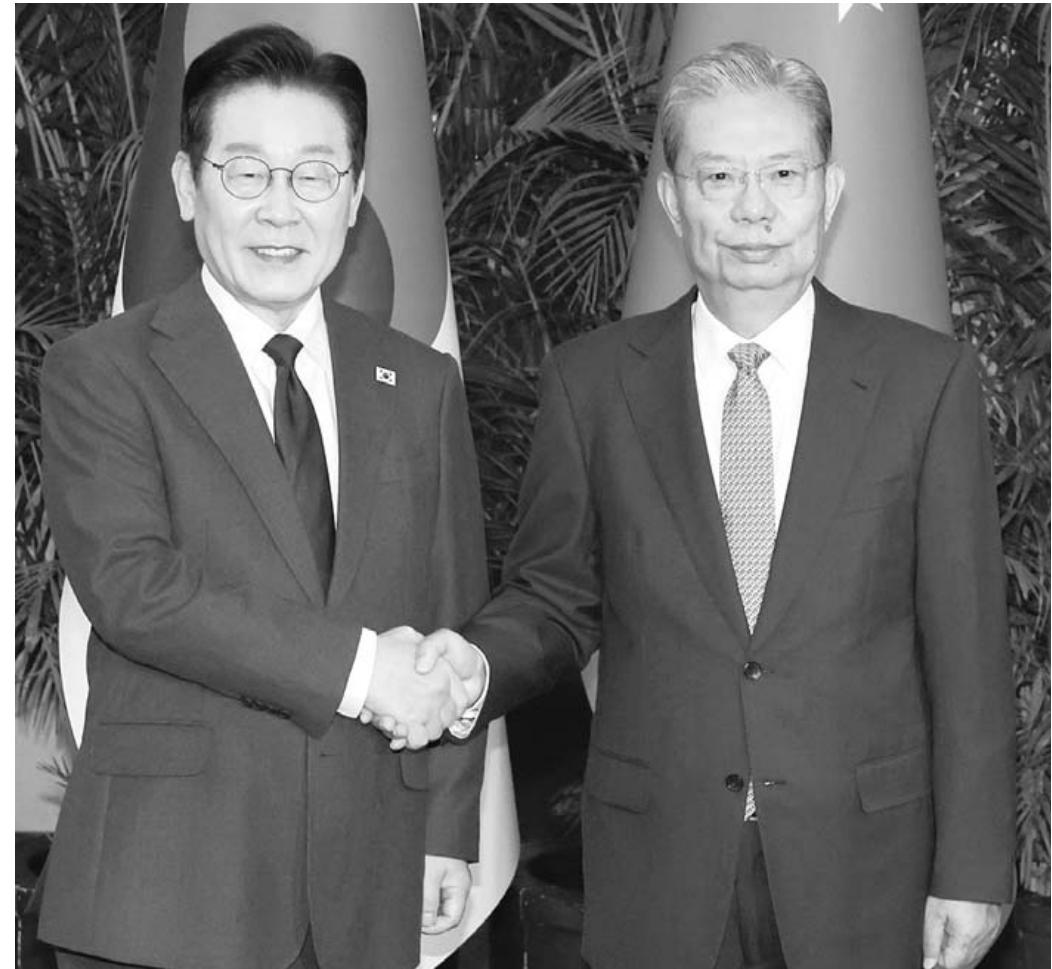
자오 위원장은 양국 의회는 물론 청년·문화·학술·지방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포함한 역사 분야 협력이 과거를 매개로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중 ‘1.5트랙’ 대화채널, 정당 간 대화채널 등을 통해 서로의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이른 시일 내 방한을 초청했고, 자오 위원장은 사의를 표하며 서로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위한 소통을 해 나가자고 답했다.

/연합뉴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 광주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 육성해야”

민형배, 오늘 ‘첨단 광기술 토론회’ 개최  
광산업 고도화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논의



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광학  
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  
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융  
합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한다. 첨단 광기술을  
중심으로 의료·에너지·우주·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과 산업화·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광기술과 광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  
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  
을)은 7일 오후 1시30분 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이날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  
수의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  
의 발전 방향’, 공홍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카이  
스트 명예교수)의 ‘레이저 핵융합과 미래 첨단 기  
술’, 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의 ‘광  
융합산업 동향 및 전망’ 발제가 예정돼 있다.

종합토론은 ‘광·의료·광·에너지·광·우주·국  
방 중심 기술·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미  
래우주국방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산·학·

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광기술은 차세대 의료 분야에서 조기·정밀진단  
과 개인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레이저 핵융합을 중심으로 차세  
대 청정에너지와 첨단제조·소재·부품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주·국방 분야에서도 광기  
술은 정밀탐지·주제와 고성능 센서 등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을 뒷받침하는 전략기술로 평가된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 강점에 기반한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광기술은 산업 전반의 전  
환을 이끄는 기반 기술로 광주 첨단 광산업 클  
러스터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양부남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은 6일 정부 정보시스템의 분산·다중화와 재  
해복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  
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700

여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  
지 못하면서 행정서비스 전반에 혼란이 발생했  
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별로 재난 상황에 대  
비한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  
·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장애관리계획수  
립지침에 필수적으로 포함  
돼야 할 사항으로 ▲내용연  
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의 교  
체 ▲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조  
치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축과 운  
영관리 ▲장애관리 관련 예산 및 투자 계획 등  
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필요  
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관리계획수립지  
침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재난 발  
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적 대  
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 권항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항엽 국  
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  
례을)은 6일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원위원  
회 활성화법’(국회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  
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으로 국  
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 규정하고 전원위원  
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항엽 의원은 “의원 전원이 책임 있게 논의  
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  
피한 상태”라며 “전원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제  
도가 아닌 실질적인 숙의와 조정의 장으로 기  
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 2급/28만
		파크골프,지도사1급	▶ 1급/35만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심판/10만

## ■ 자격취득반 / 수시접수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 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